



## 근육병·루게릭병 희망의 “숨”은 관심입니다

의식과 판단력은 너무나 또렷하지만 서서히 근육의 힘이 빠져 사지가 마비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근육병, 루게릭 병을 아십니까?

근육병, 루게릭 환자는 병을 완치 시킬 수가 없고 시한부 질환이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이러한 신경근육계 마비 질환에서는 재활치료가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의 재활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활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환자의 실질 생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활치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환자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주는 치명적인 호흡부전에 대한 재활 치료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근육병, 루게릭 병 등에 대한 무관심과 선입관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 부분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중증 상태가 되더라도 호흡재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학교생활, 사회활동도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준다면 환자의 삶의 질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대상 근육병에는 근이영양증, 근긴장성 장애, 선천성 근병증,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 병), 척수성 근위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육병은 병이 진행되면서 사지근육의 약화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를 받게 되는 질환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호흡근육 약화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2면으로 이어서)

# 편안한 호흡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아십니까?

근육병·루게릭병 환자 호흡부전에 대한 치료중단은 사망선고와 같아... 치료 돕는 사회적 시스템 시급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강성웅 소장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환자의 이러한 호흡장애의 심각성과 호흡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사업 초기부터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의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직 사회의 관심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병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완치와 치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라고 치료가 없는 것이 아니며,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완치는 못하지만 치료하면서 지내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병과 같은 진행성 신경근육계 질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무관심 때문인지 완치시킬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없다는 선입관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치료의 경우와 비교해 봅니다.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완치가 힘든 상황인 경우도 많습니다. 완치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합니다. 수술 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되면 통증 치료를 포함한 완화 요법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호스피스의 관리를 받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행성 신경근육계 질환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극성이 분명히 떨어져 보입니다. 의료진들이 병의 초기부터 환자와 함께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여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마음이 앞서 예를 든 암 환자와 비교해 볼 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만 사실은 그 반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도 적절한 사회 지원 시스템과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질환들이 많으며 이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호흡부전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재활 분야는 2000년에 이르러 비로소 제대로 된 치료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전국적인 인프라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인공호흡기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최소한 1년에 1번은 필요한 정기검진, 그 외 수시로 발병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경제적으로 이미 소진된 환

자와 환자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호흡부전에 대한 치료 중단은 곧바로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아닌 의식과 판단력이 뚜렷한 환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스스로 용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수동적이고 단편적인 치료제공을 벗어나 조기 환자 발견, 체계적인 환자관리, 전국적인 환자이송 및 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사회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를 딛고 연세대를 졸업한 연세대 호킹 신형진 군의 경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이란 희귀 질환으로 사지마비 뿐만 아니라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중증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학업을 마치고 이제는 남에게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재활치료는 직간접적으로 개인과 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약하면 보조기,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듯이 호흡근육이 약해 호흡장애가 생기면 인공호흡기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호흡근육을 보충해 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도 식물인간, 안락사 등의 심각한 상황을 연상시키는 장비에서, 일반적인 보조기처럼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하나의 보조 기구로 간주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전파하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만 생명 유지가 가능한 환자들의 의료적 사회 지원을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호흡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치료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고 있는 많은 신경근육계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외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루게릭 병·근육병과 같은 진행성 희귀·난치성 신경근육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들 질환에 대해서도 암의 경우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전문 재활병원 혹은 요양소 설립 같은 좀더 적극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루게릭 등 호흡불능 난치환자 지원 캠페인 전개

한교봉, 강남세브란스병원과 4월 15일 협약 체결

생명연장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함에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루게릭 등 신경근육계 희귀난치성 환자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장애인지원사업본부(단장 윤성원 목사)는 '장애인의날'을 며칠 앞둔 4월 15일(금) 오후 4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신경근육계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

루게릭병, 척수성 근육위축증 등 진행성 근력약화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치명적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지만 인공호흡기 지급에 그치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생존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국에 산재한 신경근육계 희귀난치성 질환자 1,200명 중 경제적 소외계층 질환자 200여 명에게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신경근육계 질환자들은 호흡부전 평가, 정밀검진 등 진료와 호흡재활, 신경근육재활, 척추측만증재활 치료 등이 필요하며 증상이 악화된 환자의 이송시 응급처치 및 인공호흡기 전원연결이 가능한 앰블런스의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환자 중 상태확인이 필요하거나 즉각적인 병원치료를 제한이 있는 경



우 의료인력의 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일부 환자의 경우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존을 직접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한교봉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생존위기에 처한 소외계층 환자들의 생명 살리기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토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윤성원 목사는 "신경근육계 환자들 중 경제적 소외계층 환자들 생명이 유지 장치인 인공호흡기의 부속교체조차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며 "한국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사역과 더불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셨음을 기억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협약체결 후 한교봉은 모금홈페이지 개설, 홍보 인쇄물 및 영상 등을 제작해 회원 교회들을 중심으로 생명중단의 위기에 처한 신경근육계 환자들의 생명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 아닌 자연 관리자”

구제역 피해농가 돌봄을 위한 지침서 발간 ... 피해지역에 무료보급 나서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및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농어촌 지원사업단(단장 정성진 목사)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농목연대회의)와 함께 '구제역 피해농가 돌봄을 위한 지침서' (사진)를 발간하고 출판감사예배를 4월 11일(월)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에서 가졌다.

이날 출판감사예배는 김종훈 목사(기감 농목회장)의 사회와 손주완 목사(작은예수

공동체)의 지도로 정성진 목사가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자' (창 1:28-31)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사태는 죄에 빠진 인간의 폭력적인 자연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전제하고 "인간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자연을 지켜야 하는 관리자"라며 "한국교회는 창조본연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범 목사(한교봉 총무)의 축도 후 진행된 2부 기념회는 이세우 목사(들녘교회)의 사회로 김정운 목사(농목연대회의 회장)의 발간사와 김종생 목사(한교봉 사무총장)의 발간취지 설명 그리고 14명의 집필자를 대표한 박순웅 목사(동면교회)의



한교봉은 지난 4월 11일 '구제역 피해농가 돌봄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내용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성진 목사와 김정운 목사가 김종배 목사(예장통합 농목회장) 김종훈 목사 그리고 기장 농목회장을 대신한 윤병민 목사(기장 정책실

장)에게 각각 출판된 지침서를 증정했다. 김종배 목사의 축하말씀 후 조언정 목사(마실교회)가 한교봉과 농목연대회의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 “한·일 교회 협력으로 일본복음화 전기 마련”

## NCCJ·UCCJ 등 일본 주요 기독교기관과 지진피해복구 협력 논의

韓·日 양국교회가 힘을 모아 일본 지진피해 복구사업을 통해 일본열도 복음화에 기여할 방안들을 모색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지난 3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해 지진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일본기독교단(UCCJ),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일본그리스도의교회(CGJ), 일본기독교사회사업동맹(JCSWL) 등 일본교회 주요 교단 및 연합기관 책임자들과 만나 향후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NCCJ, UCCJ, KCCJ에 각각 100만엔 씩, CGJ에 30만엔 등 총 330만엔의 피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김종생 목사 등 현장실사단은 먼저 일본기독교협의회(NCCJ)를 방문해 조지 기스 목사(부의장)와 히로코 우에다 목사(총무권한대행)와 면담했다. 조지 기스 목사는 “한·일 양국교회의 재해 복구 협력을 통해 기독교가 일본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각 교단 혹은 교회별로 일본을 돕는 일에 성급하게 나서기 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일본교회 및 기관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CCJ는 6개 교단과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기관이다.

이어 일본기독교단(UCCJ) 이시바시 히데오 목사(의장)와 나이토우 토메유키 목사(총간사)를 만났다. 이시바시 목사는 “3월 22일(화)에 일본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지진피해 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2월 9.0의 강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강타했다. 수만명의 이재민을 만들어낸 참담한 사고는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하루 아침에 집과 일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분주해졌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지난 3월 일본교회를 방문, 한국 교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긴급구호 자금을 전달했다.

### ※ 모금계좌 : 신한은행 100-027-061018 한국교회재해구호

피해자 및 이재민을 위한 일본교회의 모금 및 배분방법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며 “여기서 한국교회가 재해복구에 함께할 방법 등을 논의하여 추후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UCCJ는 1,800여 교회를 산하에 둔 일본의 최대 교단이다.

또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의 홍성완 목사(총간사)를 만나 현재 파악된 동북지역 한인교회 피해상황을 알아본 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홍성완 목

사는 “일본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구호품의 직접 지원은 지양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KCCJ는 1908년 설립되어 100여 개 재일한국인 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대신, 예장백석, 기장, 기감, 기성 등과 교단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

또 한교봉은 일본기독교사회사업동맹(JCSWL)을 방문해 前이사 겸 JCSWL 회원인 일본기독교봉사단의 이

시다 슈스케 대표와 만나 향후 재난 피해구호 관련 사회복지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향후 공동과제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JCSWL은 일본 내 80개 법인 및 사회사업 단체를 회원으로 둔 기관이다.

이어 일본 내 개혁장로교단인 일본그리스도의교회(CGJ) 요시미즈 후지모리 장로(해외담당서기)를 만났다. 요시미즈 장로는 “피해가 컸던 센다이 지역에 피해교회의 초교파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모금과 구호창구를 일원화 할 것”이라며 “3월 하순에 예정된 일본교계의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상황 집계 및 입장이 정리되면 한국교회가 일본교회와 어떤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현지방문 실사단을 이끈 김종생 목사(한교봉 사무총장)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일본교회를 파트너로 구호·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제하고 “일본 공교회 기관·교단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개별적인 활동 보다는 일본교회와 연계된 네트워크 사역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본교회가 피해현황을 파악한 후 한국교회에 요청하는 내용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교봉은 이번에 구축된 일본 내 협력파트너들과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향후 일본교회복구사업 및 이재민 구호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NCCJ 총무권한대행 히로코 우에다 목사에게 재해지원성금을 전달했다.

# 위안부 할머니·재일동포 등에 지진피해 성금 전달

## 대피소 여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지원

일본지진과 쓰나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일본거주 종군위안부 할머니 등 재일동포들과 피난소에서 성폭력 등의 피해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사랑이 담긴 성금 1억 4천여 만원이 전달됐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은 4월 18일(월)과 19일(화) 이틀간 일본 동경과 쓰나미 피해가 집중된 센다이 등을 방문해 관련기관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김종생 목사(사무총장)를 단장으로 한 이번 방문단은 18일 일본에 거주하며 유일하게 스스로 종군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힌 송신도 할머니(90세)를 만나 위로했다.

송신도 할머니는 이번 지진과 쓰나미가 덮칠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미야기현에 거주하던 중 극적으로 탈출해 최근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동경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한교봉은 송 할머니 거처의 1년분 임대료 전액과 생활비 일부 등 150만엔을 전달하고 메밀베게 등 침구세트를 선물했다.

그동안 송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윤미향 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할머니께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 데 한국교회의 관심과 정성에 매우 감사해 하셨다”며 “특히 고국의 향기가 서린 메밀베게와 침구세트를 받으시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추

후 전언했다.

또 방문단은 在日本大韓國民團(민단)을 방문해 정진 단장과 환담을 나누고 지진·쓰나미 피해 재일동포들을 위해 5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정진 단장은 “58만 재일동포 가운데 피해지역에 거주자는 2만 명 정도”라며 “민단은 대사관과 협력 하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는 등 이번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생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번 재해에 피해를 입은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음을 알아달라”며 “이후로도 재일동포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를 방문해 위로했다.

같은 날 방문단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원교육센터’를 방문해 지진피해 이후 대피소 생활 중 성폭력

”고 말했다. 이에 김종생 목사는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추며, 여성이 움직이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전하는 작은 마음이 지진과 성폭력 등 이중으로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 귀히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지원금으로 피해여성의 상담안내카드 제작 배포와 현지 조사와 상담인력 훈련 및 파송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 미야기현 거주 송신도 할머니 생활비 지원

## 재일 민단·한인연합 방문해 지원방안 논의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단은 在日本韓人聯合會(한인연합회)를 방문해 박재세 회장이게 피해 재일동포를 위한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박재세 회장은 “한국교회가 일본 지진·쓰나미 피해를 입은 동포들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에 나서준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한인연합회의 6천여 재일기업인 및 회원들도 힘을 모아 피해를 입은 동포들의 재건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 성추행 등의 피해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150만엔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니와 마사오 여사(운영위원)는 “한·일 역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인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일본여성들을 지원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지원받은 성금으로 피해지역 여성들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들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교육 파송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겠



지진피해 재일동포를 돕기 위해 민단 관계자들과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방문단은 미야기현 센다이시를 방문해 다카시 요시다 목사(센다이그리스도교연합 피재지원네트워크 대표)와 가와카미 나오야 목사(실무총괄)를 만나 피해상황 및 향후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다카시 목사는 “현재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물자지원 상황은 종료됐으며,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피난처 방문상담과 장례식 집행 그리고 유족들의 심리적 돌봄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여진 등으로 인해 건물이 추가로 붕괴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이재민들이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걱정”이라 말했다. 김종생 목사는 “피해가 가장 큰 센다이 지역에 한국교회의 지원과 관심이 직접 연결되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추후 자원봉사자의 투입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들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교봉은 지진발생 직후인 지난 3월 17일(목) 일본을 방문해 일본기독교협의회(NCCJ)와 일본기독교단(UCCJ) 및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 등에 지진구호를 위해 330만엔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일본대지진·쓰나미 피해자 및 이재민 돕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일본 재해구호 위한 라운드 테이블 구성

### ‘일본재해 공동대책협’ 결성

한국교회가 일본재해 구호를 위해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 일본재해 공동대책 협의회’ (가칭)를 구성했다.

예장통합, 기감, 기장,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기하성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과 기성, 루터회 등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기사봉) 회원교단 교단장 및 교계 연합봉사기관인 기사봉, 기독교연합봉사회(연봉),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 대표들은 지난 3월 26일(토) 오전 코리어나호텔 3층에서 ‘일본재해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 교단장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김종생 목사(한교봉 사무총장)는 “일본 공교회 기관·단체들이 모여 피해지역 20개 교단과 9개 단체가 참여하는 ‘센다이그리스도교연합 피재지원네트워크’를 결성했다”며 “일본 교계 대표들이 한국교회가 개별적인 구호보다는 일원화된 일본측 창구로 연합하여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NCCK 회원 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교회 일본재해 공동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위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본 기독교 대표로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무권한대행 히로코 우에다 목사와 센다이 그리스도교연합 피재지원네트워크 대표 다카시 요시다 목사, 그리고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 총간사 홍성완 목사를 초청해 4월 2일(토) 오전 7시 그랜드엠베서더호텔 4층 도라지룸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및 총무들을 초청해 가진 이번 설명회는 한국교회의 일본재해 복구지원에 대한 일본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지난해 ‘한국교회 아이티 연합’의 전통을 살려 해외 재난 사태에 대한 한국교회의 연합 구호사역의 중요성을 살려냈다.



센다이그리스도교연합 피재지원네트워크에서 사용할 배너를 전달하는 모습.



할머니들과 함께한 화개장터에서의 한 때.

## 가정의 달, 위안부 할머니 봄나들이 행사

### 한교봉·정대협 공동으로 ... 국내거주 할머니 33명과 함께

가정의달 5월과 어버이날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가족공동체를 경험하는 봄나들이 행사가 열렸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공동으로 5월 7일(토)과 8일(주일) 양일간 경남 하동과 하계 구례 등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가정의 달 맞이 인권캠프 - 새봄살이’ 행사를 가졌다.

국내 거주 중인 65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중 33명과 15명의 자원봉사자 및 활동가 등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서울 대구 부산 창원 평택 등에서 각각 출발한 전국 각지의 할머니와 봉사자들이 춘양제 행사가 열리고 있는 남원에 집결한 후 하동매암차박물관, 평화의 숲에 마련된 고정서운 할머니 추모비 방문, 화개장터 관람, 지리산온천랜드 온천욕 등의 순서를 가졌다.

출발에 앞서 최이우 목사(한교봉 상임단장)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우리집’을 방문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한국교회가 마련한 봄나들이 행사를 기쁘게 다녀오시도록 기도했다. 최 목사는 “할머니들을 뵈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을 뵈는 듯하다”며 “여기서 뵈 여러 어머님들이 건강하게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라 말했다.

하동 매암차박물관에서 일행은 참여다회, 김해은빛 예술어린이집, 프로젝트바다이야기 등이 주관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해 찻자리 접빈, 어버이날 기념놀이, 음악회, 차소풍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바 있는 고정서운 할머니 추모비가 위치한 평화의 숲을 방문해 동료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또 화개장터에서 옛 향수를 느끼고, 지리산 자락의 온천수에 심신의 피로를 달래기도 했다.

윤미향 대표(정대협 상임대표)는 “1박2일의 행사였



상임단장 최이우 목사가 할머니들에게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지역 할머니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기 위해 실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4박5일의 일정이었다”며 “우리의 못난 역사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외롭게 살아오신 할머니들이 한국교회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교봉은 ‘화해사역’의 일환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한국교회의 숙제 중 하나라는 인식하에 2010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쉼터 위로방문을 시작으로 항의집회 참석과 일본정부의 위안부문제 공식인정 및 사과 촉구 서명운동 전개, 피해자 쉼터 운영비 지원, 지진피해로 거처를 잃은 송신도 할머니의 동경 재 정착 지원 등의 사역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아이티에서 온 편지 - 이인수 목사

# 콜레라 '이종고' 바지길 아이티 위해 '전문 클리닉' 설립

아이티 지진 이후 슬픔에 빠진 이제민들에게 닥친 심각한 어려움 중 하나는 2010년 생막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명이 없지만, UN군으로 파견된 네팔 군인이 그 원인이었다는 소문이 나돌아 한때 아이티 사람들은 UN군 차량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UN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소요가 발생할 정도로 큰 혼란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콜레라는 발생 이후 빠른 조치가 취해지면 치료가 가능해 사망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티의 열악한 환경과 지진 이후 대다수 이재민들의 영양상태가 크게 나빠진 상황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콜레라의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물과 음식을 끓여야 하지만, 전 국민의 대다수가

숯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아이티의 조리전통은 지진 이후 식수와 음식물의 오염을 부채질 했습니다.

아이티는 지진 이전에도 오랜 기간 조림사업(造林事業)을 통한 시한 채 주민들이 무작정 나무를 베어 숯을 만들어 사용하였기에 전체 국토의 98%가 황폐화되어 숯을 만드는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의 엄지손가락 2배 정도의 가는 굵기의 나무까지도 숯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콜레라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도시빈민 30만명이 거주하는 시티솔레 와프제레미(Cite Soleil Wharf Jeremie)에 예정합신교단, 굿피플과 함께 '콜레라클리닉'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도미니카교회협의회와 함

께 과다부케시 가나안(Cannan Croix-des-bouquet) 지역에 두 번째 콜레라클리닉을 오픈했습니다. 현재 와프제레미 콜레라클리닉은 현재까지 150여 명을 치료했으며, 평균 2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평균 5명 내외의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하고 있으며 우기가 시작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콜레라클리닉은 3만개가 넘는 지진피해 이재민 텐트가 있는 지역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UN과 여러 NGO들의 노력으로 작년 발생했던 콜레라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3월말부터 시작된 우기로 인해 환자들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콜레라

치료를 위해 설치되었던 시설들이 재정 부족으로 속속 문을 닫는 형편이어서 다시 콜레라가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십 년 내에 가장 큰 비가 내렸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28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티는 지진 이후 정치적인 혼란을 포함한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아직도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생각 속에는 아이티의 지진재해는 과거의 일로 잊혀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진이 발생했던 시기 이상으로 아이티와 그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도시빈민 30만명이 거주하는 시티솔레 와프제레미(Cite Soleil Wharf Jeremie)에 예정합신, 굿피플과 함께 '콜레라클리닉'을 설립했다.



## '섬기는 교회' 위한 미래목회 컨퍼런스

연세대 대강당 6월 27일-30일

이웃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함께하는 '섬기는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교육사업단(단장 윤호균 목사)은 6월 27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11 미래목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교회와 디아코니아'를 주제로 1천여 명의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예배와 '탈세속화 시대의 디아코니아'를 제목으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3박4일 동안의 일정을 시작한다.

날짜/시간	09:30~10:30	10:50~11:50	13:20~14:20	14:40~15:40	16:00~17:00
6월 27일(월)			개강예배 김삼환 목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명성교회)	기·조·강·연 탈세속화 시대의 디아코니아 이정배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6월 28일(화)	성서와 교회사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한국디아코니아 연구소장)	지역사회와 디아코니아 김종생 목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영상	사랑 섬김 그리고 평화 (13:30-15:00) 한완상 박사 (전 대한적십자 총재)	영상 에큐메니칼 운동과 디아코니아 (13:30-15:00) 오재식 박사 (전 월드비전 총재)
6월 29일(수)	교회자원과 디아코니아 이근홍 교수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부와의 파트너십과 디아코니아 정무성 교수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영상	디아코니아와 실천(1) (5개 영역 중 1 강좌 선택)	디아코니아와 실천(2) (5개 영역 중 1 강좌 선택)
6월 30일(목)	성령과 디아코니아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영상	Charity & Philanthropy와 디아코니아 강철희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리와 디아코니아 정석환 원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증강예배 윤호균 목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교육사업단장, 화광교회)

**성경과 나눔의 콘서트**  
(16:00~17:30)  
홍순관과 박석리가 함께하는  
(그늘에 들어가 부르는 노래)

#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선교 초기부터 이 땅에 병원과 학교 그리고 고아원과 양로원 등을 설립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온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한 디아코니아(Diakonia) 연합기관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기독교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2002년 창립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를 모태로 하여 2007년 12월 서해안 앞바다의 원유유출 사고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로하는 130만 방계 자원 봉사의 섬김으로 대동되었습니다.

서해안 원유유출사고 자원봉사 활동 이후 2008년 미얀마 사 이클론, 중국 스촨성 지진, 2009년 필리핀 수해, 인도네시아 지

진, 2010년 아이티 지진 등의 재난 구호와, 용산참사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희귀난치성 질병환자 등의 지원 및 증재, 그리고 2005년과 2010년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혹은 교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섬김의 사역을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로 엮어 "하나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되자"는 기치아래 진행하며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재해구호·자원봉사·화해사역을 통해 <소통하는 한국교회>, <섬세한 한국교회>를 구축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 조직 -

- 대표회장 : 김삼환
- 이사장 : 손인웅
- 상임단장 : 김경원 양병희 오정현 이영훈  
이철신 최이우 한태수
- 사업단장 : 고명진 소강석 송기성 박철규  
윤성원 정성진 최길학 윤호균
- 총무 : 최희범
- 사무총장 : 김종성



## ◎ 후원내역

교회	담임	금액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300,000
덕수교회	손인웅	8,000,000

교회	담임	금액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300,000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300,000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2005 여성대회 이광자		17,893,404

교회	담임	금액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300,000

교회	담임	금액
명성교회	김삼환	22,950,000

교회	담임	금액
명성교회	김삼환	12,950,000
사랑의교회	오정현	30,000,000

교회	담임	금액
명성교회	김삼환	12,950,000
사랑의교회	오정현	37,000,000

교회	담임	금액
고명성(주점교회)		5,000
김경원(서현교회)		300,000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00,000

김득연(동성진흥)	100,000
김병삼(만나교회)	200,000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100,000
김양원(신앙애교회)	200,000
김원광(증계총성교회)	100,000
김원호(석성침례교회)	10,000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	30,000
김종성(한국교회희망봉사단)	10,000
김중용(부평제일교회)	200,000
김준수(천안하늘중앙교회)	10,000
김형준(동안교회)	100,000
류영모(한소망교회)	100,000
류중훈	30,000
문강원(원천교회)	100,000
박윤석(청주우암교회)	500,000
박은조(샘물교회)	400,000
박종인(예장합신)	100,000
박홍자(한국급식협회)	30,000
방수성(시흥교회)	100,000
서도형(홍은교회)	100,000
서재일(원주영광교회)	1,000,000
서정오(동승교회)	300,000
서철(상동교회)	200,000
손달익(서문교회)	200,000
손인웅(덕수교회)	300,000
송기성(정동제일교회)	500,000
신화석(안디옥교회)	100,000
안용운(은진교회)	100,000
양해규(수원중앙교회)	5,000
여덕선(열방교회)	10,000
오정호(새로남교회)	500,000
오진석(하나성결교회)	30,000
유인석(과천소망교회)	5,000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100,000
윤성원(삼성제일교회)	300,000
이경희(하늘중앙교회)	5,000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30,000
이순(천안중앙교회)	100,000
이은화(경신복지재단)	100,000
이재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	100,000
이철신(영락교회)	1,000,000
이태훈(수원동부성복력상담소)	5,000
장경덕(가나안교회)	100,000
장덕만(동암교회)	100,000
장현승(과천소망교회)	30,000
전윤원(석천광명교회)	30,000
정명철(도림교회)	100,000
정연철(양산성결교회)	100,000
정재우(순복음교회)	100,000
정필도(수영로교회)	100,000
조남선(배푸는공동체)	30,000
조상돈(시온성교회)	50,000
조재호(고척교회)	100,000
조종남(장중단교회)	300,000

교회	담임	금액
김득연(동성진흥)		100,000
김병삼(만나교회)		200,000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100,000
김양원(신앙애교회)		200,000
김원광(증계총성교회)		100,000
김원호(석성침례교회)		10,000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		30,000
김종성(한국교회희망봉사단)		10,000
김중용(부평제일교회)		200,000
김준수(천안하늘중앙교회)		10,000
김형준(동안교회)		100,000
류영모(한소망교회)		100,000
류중훈		30,000
문강원(원천교회)		100,000
박윤석(청주우암교회)		500,000
박은조(샘물교회)		400,000
박종인(예장합신)		100,000
박홍자(한국급식협회)		30,000
방수성(시흥교회)		100,000
서도형(홍은교회)		100,000
서재일(원주영광교회)		1,000,000
서정오(동승교회)		300,000
서철(상동교회)		200,000
손달익(서문교회)		200,000
손인웅(덕수교회)		300,000
송기성(정동제일교회)		500,000
신화석(안디옥교회)		100,000
안용운(은진교회)		100,000
양해규(수원중앙교회)		5,000
여덕선(열방교회)		10,000
오정호(새로남교회)		500,000
오진석(하나성결교회)		30,000
유인석(과천소망교회)		5,000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100,000
윤성원(삼성제일교회)		300,000
이경희(하늘중앙교회)		5,000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30,000
이순(천안중앙교회)		100,000
이은화(경신복지재단)		100,000
이재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		100,000
이철신(영락교회)		1,000,000
이태훈(수원동부성복력상담소)		5,000
장경덕(가나안교회)		100,000
장덕만(동암교회)		100,000
장현승(과천소망교회)		30,000
전윤원(석천광명교회)		30,000
정명철(도림교회)		100,000
정연철(양산성결교회)		100,000
정재우(순복음교회)		100,000
정필도(수영로교회)		100,000
조남선(배푸는공동체)		30,000
조상돈(시온성교회)		50,000
조재호(고척교회)		100,000
조종남(장중단교회)		300,000

전현표(상동사랑교회)	10,000
정명철(도림교회)	100,000
정명호(혜성교회)	100,000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500,000
정승룡(늘사랑교회)	300,000
정연철(양산성결교회)	200,000
정재우(순복음교회)	100,000
정필도(수영로교회)	100,000
조남선(배푸는공동체)	30,000
조상돈(시온성교회)	50,000
조재호(고척교회)	100,000
조종남(장중단교회)	300,000
조창희	10,000
조홍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30,000
진회근(송리교회)	500,000
최이우(종교감리교회)	1,000,000
한태수(은평성결교회)	1,000,000
홍문수(신반포교회)	300,000
황형택(강북제일교회)	300,000

교회	담임	금액
명성교회	김삼환	12,950,000
사랑의교회	오정현	30,000,000

교회	담임	금액
명성교회	김삼환	12,950,000
사랑의교회	오정현	37,000,000

교회	담임	금액
고명성(주점교회)		5,000
김경원(서현교회)		300,000
김동배(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100,000

김득연(동성진흥)	100,000
김병삼(만나교회)	200,000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100,000
김양원(신앙애교회)	200,000
김원광(증계총성교회)	100,000
김원호(석성침례교회)	10,000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	30,000
김종성(한국교회희망봉사단)	10,000
김중용(부평제일교회)	200,000
김준수(천안하늘중앙교회)	10,000
김형준(동안교회)	100,000
류영모(한소망교회)	100,000
류중훈	30,000
문강원(원천교회)	100,000
박윤석(청주우암교회)	500,000
박은조(샘물교회)	400,000
박종인(예장합신)	100,000
박홍자(한국급식협회)	30,000
방수성(시흥교회)	100,000
서도형(홍은교회)	100,000
서재일(원주영광교회)	1,000,000
서정오(동승교회)	300,000
서철(상동교회)	200,000
손달익(서문교회)	200,000
손인웅(덕수교회)	300,000
송기성(정동제일교회)	500,000
신화석(안디옥교회)	100,000
안용운(은진교회)	100,000
양해규(수원중앙교회)	5,000
여덕선(열방교회)	10,000
오정호(새로남교회)	500,000
오진석(하나성결교회)	30,000
유인석(과천소망교회)	5,000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100,000
윤성원(삼성제일교회)	300,000
이경희(하늘중앙교회)	5,000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30,000
이순(천안중앙교회)	100,000
이은화(경신복지재단)	100,000
이재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	100,000
이철신(영락교회)	1,000,000
이태훈(수원동부성복력상담소)	5,000
장경덕(가나안교회)	100,000
장덕만(동암교회)	100,000
장현승(과천소망교회)	30,000
전윤원(석천광명교회)	30,000
정명철(도림교회)	100,000
정연철(양산성결교회)	100,000
정재우(순복음교회)	100,000
정필도(수영로교회)	100,000
조남선(배푸는공동체)	30,000
조상돈(시온성교회)	50,000
조재호(고척교회)	100,000
조종남(장중단교회)	300,000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30,000
진회근(송리교회)	500,000
최이우(종교감리교회)	1,000,000
추연호(은파교회)	50,000
한태수(은평성결교회)	1,000,000
홍문수(신반포교회)	300,000
황형택(강북제일교회)	300,000

교회	담임	금액
명성교회	김삼환	12,950,000
사랑의교회	오정현	30,000,000

교회	담임	금액
명성교회	김삼환	12,950,000
사랑의교회	오정현	37,000,000

김득연(동성진흥)	100,000
김병삼(만나교회)	200,000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100,000
김양원(신앙애교회)	200,000
김원광(증계총성교회)	100,000
김원호(석성침례교회)	10,000
김정규(선한사마리아인운동)	30,000
김종성(한국교회희망봉사단)	10,000
김중용(부평제일교회)	200,000
김준수(천안하늘중앙교회)	10,000
김형준(동안교회)	100,000
류영모(한소망교회)	100,000
류중훈	30,000
문강원(원천교회)	100,000
박윤석(청주우암교회)	500,000
박은조(샘물교회)	400,000
박종인(예장합신)	100,000
박홍자(한국급식협회)	30,000
방수성(시흥교회)	100,000
서도형(홍은교회)	100,000
서재일(원주영광교회)	1,000,000
서정오(동승교회)	300,000
서철(상동교회)	200,000
손달익(서문교회)	200,000
손인웅(덕수교회)	300,000
송기성(정동제일교회)	500,000
신화석(안디옥교회)	100,000
안용운(은진교회)	100,000
양해규(수원중앙교회)	5,000
여덕선(열방교회)	10,000
오정호(새로남교회)	500,000
오진석(하나성결교회)	30,000
유인석(과천소망교회)	5,000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100,000
윤성원(삼성제일교회)	300,000
이경희(하늘중앙교회)	5,000
이만식(장로회신학대학교)	30,000
이순(천안중앙교회)	100,000
이은화(경신복지재단)	100,000
이재원(종로종합사회복지관)	100,000
이철신(영락교회)	1,000,000
이태훈(수원동부성복력상담소)	5,000
장경덕(가나안교회)	100,000
장덕만(동암교회)	100,000
장현승(과천소망교회)	30,000
전윤원(석천광명교회)	30,000
정명철(도림교회)	100,000
정연철(양산성결교회)	100,000
정재우(순복음교회)	100,000
정필도(수영로교회)	100,000
조남선(배푸는공동체)	30,000
조상돈(시온성교회)	50,000
조재호(고척교회)	100,000
조종남(장중단교회)	300,000

교회	담임	금액
명성교회	김삼환	12,950,000
사랑의교회	오정현	30,000,000

## • 후원 계좌 : 신한은행 100-022-688472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 일본구호성금(3월~5월)

후원자	금액
(북)기독교연합봉사회	10,000,000
(주)동성진흥	1,000,000
(주)서울캐딜락	100,000
감사합니다	30,000
강북성덕교회	282,000
강영아	30,000
강지영	100,000
강창균	100,000
고춘화	100,000
고명교회(임영희)	129,080
고희섭	50,000
광은교회	522,500
구인선	100,000
국군수송중앙교회	300,000
군포제일교회(권태진)	1,000,000
권필희	400,000
권혁창	300,000
그리스도대사단	2,093,000
금중영	70,000
김경만	1,000,000
김규섭	100,000
김남현	50,000
김미리	50,000
김서욱	30,000
김사옥	50,000
김선영	100,000
김선희	100,000
김선희	410,000
김수만	50,000
김순희	10,100
김순희	110,000
김순희신복점	90,000
김승철	100,000
김시자	10,000
김신애	100,000
김연미	50,000
김영래	80,000
김영림	20,000
김영순	30,000
김은주	20,000
김정준	30,000
김정영	10,000
김중환	100,000
김지연	50,000
김정권	200,000
김현숙	100,000
김희순	25,000